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송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주간
충
현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현 편집국장:이형수

2001년도 충현교회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인자의 온 것은...(막 10:45)

충현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의 2001년도 여름성경 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발표되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는 마가복을 10장45절에 나타난 것처럼, 영혼을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헌신과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면 제자들을 향해

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꾸짖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참된 각성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자(막 10:44). 그리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

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예수 를 따르는 순종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자(막 10:45).

부 서	기 간	장 소	주 제	강 사
영아부	7/18(월)-7/17(화)	선102호	나는 삶과 섬기는 삶	송길림 목사 현영준 전도사
유아부	7/18(월)-7/17(화)	교212호	예수님 사랑해요	김정자 전도사
유저부	7/18(월)-7/17(화)	교205호	나는 예수님 깨어요	정영희 전도사
유년부	7/18(월)-7/17(화)	교314호	하나님의 진심만큼 승리하고 기도하며 전도하자!	이정철 전도사
초등부	7/23(월)-7/24(화)	교307호	"나는 삶, 섬기는 삶"	김윤식 전도사
중년부	7/18(수)-7/19(목)	충현기도원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김영기 강도사
중등1부	7/25(수)-7/27(금)	충현기도원	복음의 삶 / 김영진 전도사	미국근 목사 / 김영진 전도사
중등2부	7/23(월)-7/25(수)	충현기도원 외	오직 예수	이종철 목사 / 김성경 전도사
중등3부	7/23(월)-7/25(수)	충현기도원	민들의 사랑되어 세상을 정복하자	서광진 목사 / 이길철 전도사
고등부	8/6(월)-8/8(수)	충현기도원	"천양하리 십자가의주님, 부활의주님"	김영준 목사
대학부	7/3(화)-7/6(금)	충현기도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류병철 목사
청년1부	6/5(화)-6/6(수)	충현기도원	믿음 그리고 삶	이성삼 목사
청년2부	7/18(월)-7/17(화)	천보성기도원	복음이 한민족에게 생할하라	이종진 목사
청년3부	7/18(월)-7/17(화)	충현기도원	참된 행복	김동호 목사
청년4부	7/2(월)-7/3(화)	충현기도원	하나님의 나라	
청년5부	8/9(화)-8/10(수)	충현기도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김교성 목사 외
신혼가정부	7/5(목)-7/6(금)	갈렙리울	예수님께 감사하자	이종대 목사
신앙부	6/5(화)-6/6(수)	신석수련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방준영 목사
사랑부	7/18(월)-7/17(화)	충현기도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노경목 목사 / 이심열 전도사
에버다부	7/23(월)-7/25(수)	충현기도원	"나는 삶, 섬기는 삶"	박인기 목사

6월 위임목사 설교				
일 시	예 배	본 문	제 목	
6월 3일	2:3-5부	행 2:14-21	오순절	
6월 10일	3:5부	갈 4:28-31	약속의 자녀	
6월 17일	1:3-4부	수 1:1-6	놀라운 도전	
6월 24일	3:5부	말 4:2	의로운 해	

6월의 주요행사

성령강림주일 (3월)
정기당회 (10월) 수요일 예배 후, 당회실
정기제직회 (6월) 저녁 찬양예배 후, 본당
제3차 학습세례식 (24일)

6월 기도원 담당

여성기 목사 (10교구 지도)

지난 수요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1절). 이 말은 민수기에서 41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다. 즉, 2절에 기록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야 하는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는 땅 역시 모세가 임의대로 정복하려던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땅이었다(창 17:8).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을 대하여 정탐꾼으로 삼발된 땅으로, 즉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탐에 임해야 했다.

정탐을 마친 후, 12명 중에서 열 명의 정탐꾼이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그 땅 싹과를 증거물로 내세우며(26절),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만한 땅이고 고백했다(27절). 그러나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권세나 환경이라는 정복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권세는 그들의 가슴에서 잊혀지고 사라져 버렸다. 나쁜 자손과 그 성은 그리고 하나님은 작아졌으며(28절),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보고는 했으나, 믿음의 보고는 하지 못했다(29절). 그들은 이스라엘의 두령들이었고 하나님께 믿음의 보고서를 드려야했지만, 안타깝게도 불신의 보고서를 드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피로증 정탐에 몰아넣는 영적 소격을 이었다(창 14:1).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증거물로 가지고 온 싹과를 먹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달랐다. 모세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백성들을 안내하셨다(30절 a).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죽기로 올라가자"(30b). 그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

갈렙의 선포 (민 13:30)

구하고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였던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임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갈 길은 것이요 달음처럼하여도 반치 아니하였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이다"(사 40:31).

이렇듯 민수기 13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담겨있다. 우리가 결과를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불신을 심으면 불신의 열매를 두 손에 고스란히 되돌려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두 가지의 소리를 내고 있는 이 분석적인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마음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의 음성에 끼어들고 있는가? 하나님께 믿지, 세상의 권능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가?

회하여 추수할 것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는 주님의 음성에 누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마 9:37).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자. 어부들 사냥 낚는 어부로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다리자(눅 24:49). 그리고 12명의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열 명의 정탐꾼과 같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신학 칼럼

교회의 성례

교회가 행하는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일생동안 한번 받는 것이며, 성찬은 세례교인이 참여하여 받는 것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교회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성례는 예수께서 시작하셨고 행하라 명령하신 교회의 예식이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를 시작하셨고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마 28:19).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행 2:38). 즉 죄를 슬퍼하며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로 세례를 받은 것이며(골 6:11-10), 제자가 되는 길과 관련이 있다(마 28:19). 그러기에 세례는 신자가 거듭나 새사람이 된 것을 의적으로 증명하는 예식이다.

성찬은 예수께서 잡하시기 전날 밤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여기에 속죄의 의미를 덧붙여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다(눅22:19-20) 성찬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고생을 기념하며(고전11:24)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이다. 성도들이 이 예식을 행할수록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제명의 매개로 전하는 의미가 있다(마 26:29; 고전 11:26)

이러한 성례의 의미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성례가 주님께서 오실때까지 교회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우리의 삶속에서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 우리 충현의 성도들이 이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대한다.

이수준 (목사, 8교구 지도)

Children of Promise

(Galatians 4:28-31)

“And you brethren, like Isaac, are children of promise”

In today's Bible verses, Paul explains how we are justified by faith using an allegory, the story of Abraham's two sons. He says, “And you brethren, like Isaac, are children of promise” (v. 28). He uses the word “brethren” to refer to members of God's family. Paul wants members of God's family to know that they are not like children born from a bondwoman, but they are like children born from a free woman. They are like Isaac, children of promise. This carries an important message concerning salvation by faith, not human effort. Certain Jewish Christians were teaching the Galatians that merit-salvation through obedience to the law of Moses was necessary. Paul vehemently argued against this heresy. He proclaimed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plus nothing, and of sanctification by the Holy Spirit, not the Mosaic Law. He explains this wonderful truth by drawing lessons from the Genesis account of Abraham's sons and the significance of God's promise.

What kind of promise touches children of God? Isaac's brother, Ishmael, was fourteen years older than him. He, too, was Abraham's son. God promised Abraham that his descendants would be blessed, and Ishmael was his descendant, but he was not the child of promise. Isaac was the child of promise. How was it that Isaac became the child of promise and not Ishmael? Ishmael was born naturally, and Isaac was born supernaturally. Remember Hagar, Ishmael's mother? She was young and able to bear children when she had Ishmael. Sarah, on the other hand, was very old and way past childbearing age when she had Isaac. Ishmael was born through ordinary means, but Isaac was born through miraculous means because of God's promise. As such, Christians are not children of nature, but they are children of supernature.

What does it mean to be a child of supernature? It means that believers are treated like Isaac. Isaac and Ishmael were brothers that had two different mothers but the same father. Abraham, their father, treated each one

differently. Isaac received special treatment from Abraham, just as we receive special treatment from our Father God. Amen! Ishmael treated Isaac bad, “But as at that time he who was born according to the flesh persecuted him who was born according to the Spirit, so it is now also” (v. 29). Sarah kicked out Hagar and Ishmael because Ishmael mocked Isaac (Gn. 21:9-10). Spiritual children (promised children) have to expect persecution from those “born according to the flesh”. Indeed, we experience today the same treatment which Isaac received from Ishmael. If you are a true child of the Spirit you can say “Amen!” because you know this to be so true.

It was during Isaac's celebration of being weaned that Ishmael mocked him (Gn. 21:8). At this time, Isaac was three years old and Ishmael was seventeen years old. We don't know how he mocked him, perhaps he laughed and made obscene gestures. Whatever the situation, we can expect the same kind of mistreatment. We are going to experience persecution. From this earth, from the nature of those not in Christ, the Church and its individual members suffer persecution. What's amazing is that we probably suffer more harm from our half brothers than we do from total strangers of unbelievers! Often times believers are persecuted more from within family and church than from without. Why? Just look at Jesus. He was persecuted by the high priests, scribes, and Pharisees, as well as from His own nation of people. Even Paul was persecuted by church leaders, to the extent that they wanted to kill him. The most dangerous enemy of evangelists are not unbelievers, but half brothers, those who mix the gospel with their own authority, fame, wealth, and spirituality, like Ishmael.

God specifically designated Isaac, not Ishmael, as heir of the covenant, “And Abraham said to God, ‘Oh that Ishmael might live before You!’ But God said, ‘No, but sarah your wife shall bear you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Isaac; and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him for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his descendants after him” (Gn. 17:18-19). God wanted to give His promise to covenant people, His people, the spiritual descendants of Isaac. God said, “Cast out the bondwoman and her son, For the son of the bondwoman shall not be an heir with the son of the free woman” (v. 30). Abraham cast out the child of the bondwoman under God's command (Gn. 21:12).

As children of God we have to expect suffering, “and if children, heirs also, heirs of God and fellow 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uffer with Him so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with Him” (Rm. 8:17). In suffering with Jesus, we have to remember that we are also glorified with Him. Amen! If you are a child of God on this earth and in the church, you will experience suffering. The reason why is because you are a child of God, “by glory and dishonor, by evil report and good report; regarded as deceivers and yet true; as unknown yet well-known, as dying yet behold, we live; as punished yet not put to death, as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as poor yet making many rich, as having nothing yet possessing all things” (2 Cr. 6:8-10). This is the picture of the Christian life. You take the cross but inside you have eternal life. It's sort of life a paradox of truth, you have the bad side of truth (suffering dishonor, evil, deceit, unknown, dying, sorrow, poor) but at the same time you have the good side of truth (glory, good, honest, well-known, life, joy, richness, all things). Isn't it wonderful that you are a child of promise? You expect this life and understand the great blessings of it. On this earth no one may know you, but the living book, the Lamb's Book of life, has your name written down in it. On this earth you are dishonored, but over there you are glorified.

There are two wonderful things we receive from Abraham's covenant. The first is the inheritance. As children of promise, we are not natural but spiritual descendants of Abraham. Like Isaac, we receive God's everlasting promise. It's not only for

Jewish people, but in Jesus Christ whosoever believes becomes a child of God. This happens because as Christians we are children of Abraham, “And if you belong to Christ, then you are Abraham's descendants, heirs according to promise” (Gal. 3:29). Amen! Believing in Christ makes the believer a descendant of Abraham and heir of the promise of justification by faith. Isn't that wonderful? Moreover, we receive the grace of God. Because of His grace we are saved. We are saved because God chose us!

Abraham had two sons, and the two sons had two mothers, and the two mothers represent two promises, and the two promises ar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and these two testaments characterized two different Jerusalem's (earth and heaven), which represent law and grace. The Old Testament gave us the Mosaic Law and the New Testament gives us the Promise. The Law is nature and the Promise is spiritual freedom. The religion of Ishmael is natural religion in which humans have to struggle and do with their own effort, without God's help. But Isaac's religion is a grace religion that God created and controls. Man is too weak by nature to accomplish self-salvation or self-sanctification. So how can we (sinful by nature) come to God (holy by nature)? There is only one way—accept the salvation God's grace makes available through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How about you? Are you a child of promise? The Bible tells us, “So, then, brethren, we are not children of a bondwoman, but of the free woman” (v. 31). My fellow Christians, we are like Isaac—children of promise. We do not stand under the Mosaic Law, slavery, and the flesh. In Christ, we stand under the Abrahamic covenant, the heavenly Jerusalem, the Spirit, and freedom. Let's believe in Jesus Christ and trust only Him. Let's rely on Him for everything. For through Him we become children of promise. Amen. 



김성곤 목사

칭의와 성화의 자녀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롭다 여김을 받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28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구성원(이후로는 ‘친족’)을 설명하기 위하여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친속들을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와 같지 않고, 자유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녀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삭과 같이 언약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의해서 얻게 된다는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 외에도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우월한 구원’(merit-salvation)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바울은 엄중하게 이러한 이단을 배격했습니다. 그는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며 그 어떤 것도 덧붙일 수 없다는 것과 성화(아들의 형상을 닮아감)는 모세의 율법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인용함으로써 설명합니다.

초자연적인 자녀

어떠한 종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삭마엘은 이삭보다 열배 살이나 많았든 형입니다. 그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했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어떻게 행한 이삭마엘이 아니라 동생인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삭마엘은 자연적으로 출생한 아이였지만, 이삭은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삭마엘의 어머니가 ‘하갈’이라는 사물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절망기 때문에 이삭마엘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사’를 너무 늦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삭마엘은 보편적인 방법으로 태어났고, 이삭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주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받는 자녀

이 초자연적인 자녀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믿는 자들이 ‘이삭’이 당한 것처럼 취급받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과 ‘이삭마엘’은 어머니가 서로 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이들을 각각 다르게 대했습니다. ‘이삭’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벨! 그러나 ‘이삭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욕제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다(29절).” ‘이삭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갈’과 ‘이삭마엘’은 ‘사라’에 의해 나뉘었습니다(창 21:9-10 참고). 성령의 자녀란, 즉 약속의 자녀들은 “욕제를 따라 난 자”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이삭’이 ‘이삭마엘’로부터 받은 괴롭고 독같은 어려움을 오늘날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성령의 자녀라면 이에 대해 ‘아멘!’이라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가 갖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받는 자녀

‘이삭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은 이삭이 몇 년 전에 기뻐하던 시기에 벌어졌습니까(창 21:8 참고). 이때 ‘이삭’은 세 살이었고, ‘이삭마엘’은 열 일곱 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삭마엘’이 어떻게 이삭을 괴롭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비가자나 못된 짓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우리도 그처럼 알지 못한 취급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로부터, 교회와 그 교인들을 고통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외부 사람이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고통보다는 우리의 절반 형제들로부터 오는 고통이며 큰 괴로움을 가운데 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자들은 가족과 교회 안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보십시오.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권위와 명예와 부와 경건의 모양과 혼합한 절반 형제들, 즉 ‘이삭마엘’과 같은 자들입니다.

약속의 계승자들

하나님은 ‘이삭마엘’이 아닌 ‘이삭’을 언약 계승자로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약속의 자녀

(갈 4:28~31)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나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아 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 17:18-19).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이삭의 영적 후손인 언약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개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30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의 자식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했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 쫓아냈습니다(창 21:12).

고난을 지나 영광에 이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고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함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8:16-10)”.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상입니다. 믿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는 어찌면 모순적인 전리지도 모릅니까. 여러분은 이 전설의 어두운 면, 즉 고통과 수치의 악과 속임과 무지함과 죽음과 슬픔과 가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은 그 진실의 선한 면, 즉 영광과 선과 정직과 밝히 가는 것과 삶과 기쁨과 부요함과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이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삶을 기대하며 그 놀라운 은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어리양양의 생명의 책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사는 동안에는 수치를 당하나, 저 위에서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두 가지 축복을 소유한 자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두 가지 축복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영적인 자녀로의 유입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연

적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마치 이삭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9)”. 아벨!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며 ‘이신칭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아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며, 두 아들에게는 각각의 어머니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 두 어머니들은 두 개의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구약(은혜의 언약)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신약(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두 언약은 율법과 은혜를 나타내는 각기 다른 두 예루살렘(세상과 하늘)으로 특징지어 집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그 모세 율법을 전달해 주었고, 신약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은혜의 구원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성실함 스스로의 자녀와 성화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본질상 스코인의 우리가 어떻게 본질상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길 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

여러분은 어떻게입니까?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형제들이 우리는 개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본문 31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처한 노예나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천사의 예루살렘이 될 영명이요 자유로운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지하십시오. 그 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정의 나라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외선부의 방글라데시팀은 춘천교회의 초창기 외선부 사역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현재 6명의 교사와 30여명의 형제들이 함께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믿는 나라이다. 현재 외선부에 출석하고 있는 형제들 대부분이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믿는 형제들이다. 다른 이슬람권이나 힌두권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개종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방글라데시가 다른 아랍권의 이슬람 국가들과는 달리 종교적인 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나라는 아니다. 동시에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에 치우쳐 많은 종교적 분쟁으로 인한 살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도 아니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규제가 심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선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많은 전도의 기회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극단민심이 온순하고 따뜻한 성정을 가진 민족이다. 그래서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개종 비율이 높은 편이다.

외선부의 방글라데시

현재 외선부에 출석하고 있는 형제들 가운데는 복음을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형제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 무슬림이었던 한 형제는 한국에 와서 외선부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독교를 알아가고 있다.

이들을 돌보는 방글라데시팀의 교사들은 일 주일에 세 번씩 정기 심방을 하면서 이들의 신앙과 한국에서의 정착을 돕고 있다. 초신자 심방과 장기 결사자 심방 그리고 주일 출석 전의 심방을 통해 주일 예배 출석에 많은 형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선부의 교사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이들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 멀지 않은 장래에 구원의 기쁨이 넘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살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몸으로 체험한 이들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잘 준비되어진 마음의 발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온순하고 정이 많은 따뜻한 이 형제들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기도하자.

나온자 천국길 수 없잖아요

자마르(Zamar)

악기와 노래로 찬양하다

지 선 화 (청년1부, 강남전도팀)

화요일이다.

강남 전도팀은 거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한다.

오늘도 강남 땅을 기뻐한다. 찬양 가운데 기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영광 /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물을 베푸시는 주여 /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있었네 /

물이 바다 담음 같아!

나의 입술이 매우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풍요롭다. 찬양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 저들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는가?

휴지와 전도지를 호기심있게 받아든 한 사람의 얼굴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서 받아들이니 교회에 관련된 내용임을 확인하고 정색을 하면서 전도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이 사람이 강남 땅에서 만난 사람이다. 강남 땅에서 나의 유일한 신앙의 제형이다. 하연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버림받는 장면이 연상되었다. 예수님은 기도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나도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저 사람 꼭 천국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역시 하실 것입니다. 나는 명령에 순종만 하렵니다. 오늘도 당신을 찬양하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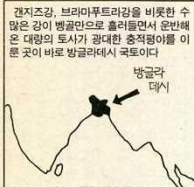
비록 전도지를 버린 그 사람으로 인해 속이 상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강남 땅을 지나갈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꼭 잡아주시길 기대하며 기도한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일이 끝나고 찬양 도구를 챙겨서 교회에 오면 저녁 9시 반이 된다. 하루 일과가 지친 날에는 악기들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나 정원의 세들이 해가 지도록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한다.

세계 선교지 정보-3

홍수와 태풍이 잦은 나라

방글라데시(Bangladesh)



세계에서 매우 가난한 나라로 인구와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다.



1억 명의 회교도들과 458개 대학의 65만 명의 대학생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창은 홍수 때문에 농산물의 피해가 크고 과밀한 인구문제로 식량난에 직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방글라데시



1989-4까지 종교의 자유가 있었으나 정부 회교를 국교로 선포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같은 회교도들이 몰아붙이지 않는 이 땅에 회교 국가의 원조와 선교단체의 봉사가 이루어져 마음들이 열리고 있다.



1억5천만 인구의 90%가 병갈족으로 87%의 인구가 회교를 숭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교와 힌두교 사이에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소수 부족을 가운데 바울족과 판루족은 거의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힌두교도들도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다.



1971년 독립 이후 18만이나 쿠데타가 있었고 9년간 군부재정이 있었다.



인구폭발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지도자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현재는 선교 단체들이 원조뿐만 아니라 복음전도, 교회 개척에 힘을 써야 한다.



춘천교회 아프리카 B국 이병석 평신도 선교사 기도제목

* 중보기도를 통해 보내는 선교사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춘천교회인들이 됩시다.

1. 동이 병자지 교회 및 천정교회를 위하여
 - 말씀을 전할 사역자를 보내 주시도록
 -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집사님들을 능력 주시도록
2. 트리폴리에 예배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3. 이곳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 본국(방글라데시)으로 돌아간 ㅇㅇㅇ 형제(바타만 선교사)와 잘 연합하여 훈련받을 수 있도록
4. 회신에 앞선 기도
 - 직함들의 마음에 회사의 어려움이 상치 가 되지 않도록
 - 헌지 공사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5. 개인 기도제목
 - 말씀과 기도여 능력을 주시도록
 - 환간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 영육간에 감동하도록
 - 가족들이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선교회평신도사
만민을 보는 세계기독교보에서 발행 요약



김현경 학생

충동원주일, 그 후...

(전도만큼 중요한 것)

김 현 경 (고동부)

지난 5월20일 우리 고동부에서는 충동원 주일로 '옛 친구 찾기, 새 친구 찾기' 운동을 하였다.

이번 충동원 주일은 작년에 했던 'VISION7000'과는 달리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전도를 하자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그 날 우리 고동부에는 30여 명의 새 친구들과 예전에 고동부에선 잘 보지 못하였던 친구들이 참여하여 같이 말씀도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충동원 주일전부터 많은 선생님들과 고동부 학생들이 나름대로 기도하며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이번 충동원 주일을 통해 이런 새 친구들과 옛 친구들을 지금 보다 더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매년 우리 고동부에선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물론 그것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올 것이다. 가끔씩 몇몇 우리 소그룹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교회가면 심심하다' '같이 있을 친구가 없다'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00~400명이나 되는 고동부 안에 같이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서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역시 그 친구들은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친구가 필요한 것이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작 그 친구를 전도해놓고 아무런 관심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친구 또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친구에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충동원 주일과 앞으로 있을 많은 행사 때 새 친구들이 많이 참석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고동부가 되었으면 한다.

꿈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지요. 천국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노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천국 문을 통과하려면 세상에서 한 일을 점수로 환산하여 1000점이 넘어야 하네. 자, 어떻게 살다가 왔는가?"

"예 전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기록을 육신 안 부끄럽고 있는 것을 죽한 줄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왔는입니다."

"오! 그래, 쉽지 않은 삶을 살았군. 그것을 인정하여 2점 주지."

"저는 평생에 몇 번을 제의하곤 거의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단하군! 1점 추가."

"또 저는 십일조를 베풀어온 적도, 담배나 술을 마셔서 몸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다. 물론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늘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인정하네. 1점 추가!"

"저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남몰래 여러 사람을 도와 주기도 했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 열심에 대한 보답으로 1점을 더 올려줬다. 모두 5점인데, 더 없는가? 995점이 부족하네... 1000점에서 단 1점이라도 모자라면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없네..."

저는 다급해져서 점수가 될 만한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들추어내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10점밖에 안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이라는 게 고작 10점이라니... 베드로 사도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빨리 일을 처리하겠다고 재촉하였습니다.

반드시 들어가라고 철썹같이 믿고 있었던 천국 문을 통과 할 수 없다는 돌발 상황 앞에서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털썹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몸부림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였습다.

그때 누군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0점짜리 초라한 저의 점수를 톨고리며 바라보시더니 연필을 들어 10 뒤에 동그라미를 두 개를 그려 넣어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아!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을 포옥 잡고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아! 살았다! 살았다! 이제 저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구나!

(낯선 해처럼 밝은 달처럼 4월호에서 발행)



크리스천의 소비문화

김 영 준 (고동부)

서울의 C고등학교의 3교시가 끝난 뒤는 시간이다. 화장실에서 걸어나온 한 학생이 무심코 복도에 침을 뱉는다. 그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 절묘한 타이밍으로 그곳을 지나가시던 학생 부장 K선생님, 학생을 불러 세우신다. 동시에 한방을 올려놓는 학생 부장 선생님께서 한 말씀을 하신다. "니 집 안방에서 침 뱉냐? 초동학 때부터 술하게 그리고 지껄도록 들어온 말이다. 그러나 많이 듣고 겪어서인지, 모두의 편의를 위하여 소중히 사용해야 할 공공시설물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기적이야 심상이다."

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연필 하나 사기가 너무 귀해 불쾌폭지를 달아 쓰던 시절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어렵던 시절을 이해하기에는 내 나이가 어리고, 지금의 세상은 돈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없도록 망가졌다거나, 소모 되어서 물건을 사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능의 등장을 이유로 많은 물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속 깊이 침투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소레기통으로 가는 일도 있다. 잃어버려도 쉽게 살 수 있으니 속상해하며 찾는 일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소위 N세대라 불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교회의 물건은 더할 나위 없다. 꼭 필요해서 마련되었던 물건들을 정말 내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는 일은 없다. 당장의 필요만 해결되면 그 물건을 어느새 소그룹실 어디나 구석에 차치하거나, 고장이라도 날 시에는 버리지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한다. 내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또 사면되니 뭐' 이런 식인 것이다.

교회의 모든 가구나 시설 그리고 장소는 우리 모두가 사용해야 할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물건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이다. 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물건 어느 하나도 주님의 일을 위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물건은 내 것보다 더 소중하게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 헌금할 때 마음을 생각하며 교회의 물건을 대하여 보자. 주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여질 기도를 하고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주머니에 두 손을 넣던 그 순간을 기억하자. 그 헌금으로 마련된 책장과도 난로이며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자.

'절약하자', '아껴 쓰자'라는 구호가식상하고 구태의연한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식상하고 구태의연한 기본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 고동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님의 일이란 커다랗고 남의 눈에 띄는 그런 화려한 일만이 아니다. 지금의 우리가 실천하는 '절약'이 주님의 일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의 작은 절약이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에 갈 수 있도록 말이다.

만평

글 : 그림 : 김범현

우리의 육체는
그 구성 물질을 통틀어
값을 매길 때
1만원도 안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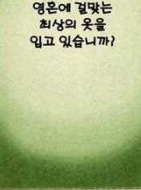
그에 비해 육체에 걸치는
의료비용은 100만원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격을
매기려면 얼마가 될까요



당신의 육체가 자기보다
비싼 것을 믿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도
영혼에 걸맞는
최상의 값을
입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의 경건 그다

간증과 나눔

내 마음의 묵상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국표 (집사, 6교구)

미국의 뉴욕 재향 병원과 한국의 신폴로안과 병원의 벽에 붙어있는 어느 환자의 글을 읽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니
결혼을 배우고 연인함을 주셨습니까? 많은 일을 하려고 간증을 구했다니 보다 가치있는 일을 하
려고 병을 주셨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다니 지혜로워지려고 기도를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을 줄을 구했다니 몸치라 말하고 실재를 주셨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다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재물을 선물로 주셨습니
다/ 구한 것 하나도 주지않는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
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까/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다. 이 글을 읽고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보았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
기에 열심이었는가? 나의 기도는 수퍼마켓에서 장보는 것과 같이 모두 다들하고만 하는
기도는 아니었던가? 세미하고 나즈막하게 그윽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얼마나 자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나의 마음을 비워 놓았는가?
내 자아로 막 차지여 주님 들어올 자리를 미처 비어 놓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가? 너무
나 마쁘고 필요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급히 달려가서 내 필요한 구하고는 충분히 하
나님으로부터 대담을 듣지도 않고 급하게 달려오니 나!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임
재하시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
하였던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
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오 주님! 모순 덩어리, 불평과 불만과 죄악 덩어리인 영터리 같은 저를 믿음으로 의
롭다 함을 얻게 하신 주님! 나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의 간구
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열심으로 기도하여 말씀을 보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으
로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며 주신 믿음을 누리면서 주신 삶을 활기차게 살겠습니다. 주
님! 사랑합니다.

조금만 더 욕심없이 살게 하소서 / 조금만 더 친절하게 살게 하소서
조금만 더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 조금만 더 섬기면서 살게 하소서
조금만 더 순종하여 살게 하소서 / 조금만 더 인내하며 살게 하소서
조금만 더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 조금만 더 알보며 살게 하소서
조금만 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 조금만 더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중재 ♥ 강은영' 예비부부를 소개합니다

인천에 살고 수원에 있는 원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충현교회에
는 10월에 결혼할 강은영 자매(초등부 교사)의 전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고, 또 무엇보다도 힘겹고 지
칠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분(예수님)이 생겼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기쁩니다.

매주 지각하는 자에게 항상 웃음을 지어 주시는 집사
님의 미소는 가장 기억에 남으며, 저를 이끌어 주시고 새가
족부 집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심
히 믿을 생활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김성준' 형제를 소개합니다

1남2녀 중 장남이며, 미혼입니다.

평범하지만 가끔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생각을 내어 스스로
도 용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권하는 사람
이 없다가, 먼저 새가족부에 나왔던 여동생의 권도로 흔쾌히
나왔습니다.

교회의 큰 규모에 무척 놀랐고 다양한 인종(외국인)이 예배
드리는 가히 국제적인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종교든 성실히 믿으면 된다는 종교관을 갖고 있었지만, 어
려운 때만 꼭 예수님을 찾아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새가족부에서의 퀴즈대회와 새가족 소개 설문지 작성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숙한 교회 분위기에 명랑하고 쾌활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
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 양오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5교구 김계수 집사(남71세) 장남 시력 병원 593호에서 암 투병 중입니다.
특별히 음식을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병상에 계신 김계수 집사님
을 찾아가 위로와 더불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간절함을 기다리십니다.

구역탐방 - 2교구

십자가의 길

2교구 논현3, 4구역



'십자가의 길' 하면 어떤
날말이 떠오르는가? 혹시
라도 '버거움'이라는 날말
이 뇌리를 뚫는가? 그렇

지 않으면 '줄거름'이라는 날말을 몇 번씩 되뇌는가? 대체로 현대의 많은 그리스
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어려운 길이라고 느낀다. 누구에게나 십자가의 길이
그만큼 버겁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충분히 숙한 성도들의 입
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올까? 이번에는 논현 3, 4구역을 찾아가 보았다.

오호 서! 이 구역의 특징은 취임 전선에 나신 구역 식구들의 행편을 감안해 구
역예배를 하루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드린다. 그래서일까? 이시간 만남의 자리
에는 백영기 권사, 한재순·박명자 구역장, 김현주·이경아 성도, 5명만이 함께 했
다. 이윽고, 감보리산 위에 있는 십자가에 향한 헌신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
면서 오늘의 구역예배가 백영기 권사님의 인도로 은혜롭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권사님의 질문에
구역 식구들은 의아해하는 눈빛이 오고갔다. 다시 한 번 십자가의 본문의 의미
를 생각해 보는 그들의 표정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으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있음을 발견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십자가의 길이 의미하는 바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비록 예수
님이 요구한 제자의 조건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십자
가를 감당할 힘이 넉넉히 생긴다는 믿음의 고백까지 주고 받았다. 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수 있도록 주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 속에서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차에게도
전달되어 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 모임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었다. 그렇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
을 걷고 있는 그들은, 한 톨만만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도 하늘나라의 기쁨을 노래하며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굳어졌
다.

구역탐방을 마치면서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이 은총의 자리에 더 많은 구역 식구
가 함께 하지 못한 점이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해 구역장이 흘리는 땀물이 있으
니 앞으로 부흥의 소망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김성희 기자)

오늘의 찬송

영화로신 주 성령(176장)

이 찬송은 성령께 간구하는 기도를 담은 찬송으로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 앤드
류 리이드(1787-1822)박사가 작사한 찬송이다. 그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경박
아들, 불치병자들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쏟았던 인물이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크나큰 존경을 받았다. 앤드류 리이드 목사의 삶은 '성화란
삶'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찬송사의 주제는 '성화'이다. 성화란
성령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사역으로서, 그 사역에 의하여 성령께서는 죄인을 죄
의 오염에서 건지신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며 성한 인
을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성화에 이르도
록 힘써야 한다.

영화로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고 빛개 하여 줌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맘을 괴롭힘 죄를 멸해 줌소서
하명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서서
온갖 괴롭힘에 기쁜 맘을 줌소서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고치고 홀로 주만 합소서 아멘.

“초등부 미이나 어린이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쓴 편지

행님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한참 땀샘을 뚫기며 땀이 높아야 할 나이에 11살의 미나, 하지만 미나는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미나는 지금 초등부 4학년입니다. 만약,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서도 4학년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세상이 원지를 모를 나이의 미나는 무서운 백혈병이란 짐을 안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 어린 나이에 맞습니다. 미나를 처음 본 건 작년 여름, 초등부 아이들의 정성을 모아 수송비에 보탬을 주었던 즈음입니다. 미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초등부 교사실에 왔습니다. 오자를 꼭 눌러 써서인지, 예쁘게 머리 핀을 묶은 다른 아이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디다.

초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아픈 미나가 빨리 건장해져,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던 얼마 전 스승의 주일, 그날, 헌금함에서 이런 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To, 하나님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5과 6반 자유연이예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하나님께 바라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하나님, 저는 미나에 대하여 잘 몰라요. 하지만 미나를 낳게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예쁜 딸 유연이 드림”

그리고 겉봉에는 ‘하나님께’라는 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유연이는 헌금과 함께 편지도 하나님께 전해지리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평소 초등부 주머에는 “미나 어린이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날 인고 덤벼드리기 쉬운 나이에 11살의 유연이, 어머니와 예쁜 마음이 담긴 이 편지가 꼭 하나님께 전달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유연이와 함께 뛰놀 줄 미나의 웃는 얼굴을 그려봅니다.

초등부 교사 박연미



친구 사랑 I

신 규 섭 (유년부 1과 7반)

나는 동복동생 노리 주위로 영인 그리기·백악강 대외에 참가하여 그리기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올림픽 공원에서 놓고 싶은 생각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고 강가이 꽤나 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부단히 강가 양쪽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기의 제목은 ‘친구 사랑’이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바로 친구를 위해 간수와 기도를 해 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도 모든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겠다.

친구 사랑 II

빙 재 영 (유년부 2과 6반)

5월 12일 올림픽공원에서 그린 그리기 대회가 있었다. 엄마와 함께 올림피아드에 가서 그림을 그렸다. 그리 제목은 ‘친구 사랑’이었다. 친구들이 아주 많았다. 그림을 그려서 넣는다는 사실에서 ‘최우수상 받기’이라고 불렀다. 엄마는 강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나도 기분이 좋았다. 아파하고 친구들과 선생님께 감사하고 싶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꼭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장래이기는 하구니다. 그리 그리기 대회가 있으면 또 참가하겠지!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며 살겠어요

장 서 현 (소년부 믿음 6반)



우리 믿음 6반이 대표로 연구수업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약간 떨리고 긴장도 되지만 이번 연구수업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 믿음 6반은 ‘목대를 할까?’라는 제목으로 연구수업을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목대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주시는 6개의 문제에 차근차근 답을 써가며 시작했다. 6개의 문제에 답을 다 작성하고 나니 선생님께서 한 번씩 발표를 시키셨다. 평소에도 바쁘고 장난치던 아이들도 모두 정성껏 했다. 나는 이번 연구수업을 통해 알게 되는 목대, 즉 하나님의 나라(천국)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정리의 생활

‘아가’ (Song of songs) 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상에서 유행했던 노래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면, 대부분 사랑에 관한 노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사랑이 담긴 노래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 (雅歌)인데, 그 의미는 ‘대중의 노래’ (Song of songs)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의미를 생각해보자면 ‘위대한 노래’ (Great song)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히브리 성경에는 ‘솔로몬의 아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아가’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아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즉 ‘아가’를 영적인 시각으로만 이해하거나, 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란 남자와 아내의 사랑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라는 게 시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실천적인 의미로서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모두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가 억지나시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던 계명을 말이지요. 그러므로 ‘아가’를 통해서 구약적 시각으로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 또는 신약적 시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순결한 사랑의 관계’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함과 동시에, 실천적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의 참사랑이라는 시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는 마치 에베소서 5:22-28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철저하게 영적이고 실천적인 순수한 참사랑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같음으로 자기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실같이 하라. 이는 온 물로 씻어 말끔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줄됨없는 것이니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 (딤후 3:12-13)

(김동학 목사·솔관국 지도)

너와 그리스도의 편지



학교가는 길

언뜻 스치거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내가 살고 있는 자취 집은 초등학교 뒤쪽에 위치해 있어서 집에 가려면 항상 학교 담벼락을 끼고 걸어야 한다. 몇 달 전 초등학교 후문으로 끌려온 한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다가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 근처에 미술학원을 아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이백미터 정도만 더 가시면 있어요”라고 대답했고, 내심 내가 배운 친절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은커녕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미술학원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혼자서 미술학원을 찾아가야 하는 모양이었다. “이백미터...” 어른의 도움이 없이 아이 혼자 걸어야 하는 좀 먼 거리가 보다. 마치 학원이 먼 것이 내 책임인 양 나는 조금 민망해 학교 앞에서 미술학원 버스가 다니는 것 같다고 말을 얼버무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길에서 혼자 자기 머지 만한 가방을 짊어지고 학교를 가는 키가 일 미터 넘었던 아이들을 유심히 보는 습관이 생겼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서른 걸음쯤 걸다가 학교에 가려한다는 목적을 잠시 잊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정신을 편다. 심지어 친구들과 자기 장난감 하며 학교의 정문대 방향으로 다다 뛰가려는 녀석들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한 5분이면 가는 등교길을 20여 분 정도 걸려 도착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이들만 학교에 가는 길에서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이 있음을 발견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아니지만 아이들이 움직이면 그 장난을 치고 장난을 학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러주는 동네 어른들, 그리고 건널목에서 흔히 “복색 어머니”로 불리는 노란 깃발을 들고 있는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우리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님’(오14장을 주셨음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의 미래를 향한 경로는 다른 것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끔 쫓겨나 있어 버리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 아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바르게 인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시며, 그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영적인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는 함께 하시니 두렵음”(447장)

(박철홍 전도사)

교회 소식

알림

1. 2001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안내
2001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이 6월 24일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 입교, 개종을 원하는 성도들은 담당교역자에게 6월10일(다음주일)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성경·찬송 대어내
안내에서 성경·찬송을 빌려서 본인 분은 필히 빌린 장소에 반납하시고, 적본자는 될 수 있는대로 새신자를 위하여 본인 찬송·성경을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모임

1. 장로 월요세례기도회
일시: 4월(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일세례기도회
일시: 5월(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전도위원회의 월례회
일시: 10일(다음주일) 10:10
장소: 전도위원회실
4. 이모임전도회의 월례회
일시: 7월(목) 11:00
장소: 영아부실
5. 경찰전도회의 월례회
일시: 10일(다음주일) 15:00
장소: 배후차기동
6. 실업인전도회의 월례회
일시: 6월11일(월) 18:30
장소: 클로리아
7. 2/4분기 감사위원, 실행위원 연석 모임
일시: 9월(일) 18:00
장소: 노아식당
8. 안수집사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유아부실
9. 권사 1차회 월례회
일시: 6월(수) 수요일부예배 후
장소: 유아부실

남녀친도회

1. 바드로 6차회 월례회
일시: 10일(다음주일) 15:00
장소: 교육관 407호
2. 바드로 1차회 월례회
일시: 12월(화) 19:00(부부동반)
장소: 교육관 201호
3. 바드로 17차회 월례회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60	임지연	2	청년2부	조순원(15)	471	임대연	19	대학부	
461	김인자	6	청년2부	김정숙(6)	472	윤진성	19	청년2부	최주승(15)
462	오혜인	6	중등부	김정숙(6)	473	송윤진	1	청년1부	김지형(1)
463	박양미	6	하나	민정숙(6)	474	양영란	7	부디아	
464	조영수	6	청년1부	민정숙(6)	475	송재원	16	청년2부	
465	유재복	6	청년1부	윤정순(6)	476	안보배	19	중등부	김소영(15)
466	윤봉용	8	베드로		477	이승희	19	청년1부	구혜정(13)
467	정기호	8	청년1부	유화자(8)	478	이영주	19	청년1부	
468	양진영	19	고등부		479	서유희	19	청년1부	전혜명(12)
469	전금자	19			479	송기운	6	요한	
470	신지연	19	청년2부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6월 10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정원민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서정진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기독교 (정해성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307호		
6월 17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준경 목사)	교육관 407호	세례론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자 (이종성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6월 24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자녀 찬양예배,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 일시: 10일(다음주일) 15:00
장소: 교구모임 장소
4. 한나 4차회 월례회
일시: 10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복지관 지하2층
5. 루디아 3차회 월례회
일시: 4일(월) 10:00
장소: 산동공원
6. 루디아 7차회 월례회
일시: 12일(화) 11:00
장소: 올림픽공원 북2동 팔각정
7. 루디아 11차회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유아부실

별세

1. 김두희 성도
(김일성 집사의 부친, 12교구 함정구역) 5월
25일 별세, 5월28일 장례

결혼

1. 송은근 군(송기용 성도, 정순은 권사의 아들, 10교구)과 이원희 양(이상자 집사, 심재현 집사의 딸, 16교구) / 5월(화) 13:00 갈릴리움
2. 심재현 군(심재현 안수집사, 백명조 권사의 아들)과 한희연 양(한만희 집사, 김정원 집사의 딸, 17교구) / 9월(토) 14:00 코스트 타워 3층 예식부(☎3484-7798)

주소변경

1. 김경식 집사, 김석만 권사 서울 구로구 고척2동 대우(☎111-1506)
2. 김연태 집사, 박현숙 집사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504-2001호 ☎31-556-1895)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후 2:00	본당
	II 오후 9:00	본당
	III 오후 11:00 (주세위와동행예배)	본당
	IV 오후 1:00(이동행예배)	본당
	V 오후 3:00 (일반인만 예배)	본당
찬양대 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대 예배	10월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일 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성·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 | | |
|---------------------|---------------------|---------------------|
| 조순진
신도부서
신도부서 | 김은호
신도부서
신도부서 | 노광현
신도부서
신도부서 |
| 오인국
신도부서
신도부서 | 윤인현
신도부서
신도부서 | 최대성
신도부서
신도부서 |
| 김영철
신도부서
신도부서 | 김오영
신도부서
신도부서 | 오정현
신도부서
신도부서 |
| 남진우
신도부서
신도부서 | 서동석
신도부서
신도부서 | 정운석
신도부서
신도부서 |
| 문봉구
신도부서
신도부서 | 조인재
신도부서
신도부서 | 김종구
신도부서
신도부서 |
| 김재현
신도부서
신도부서 | 이창호
신도부서
신도부서 | 차진숙
신도부서
신도부서 |
| 박영식
신도부서
신도부서 | 김광남
신도부서
신도부서 | 이종석
신도부서
신도부서 |
| 이하영
신도부서
신도부서 | 박인진
신도부서
신도부서 | 김인관
신도부서
신도부서 |
| 안우주
신도부서
신도부서 | 최명환
신도부서
신도부서 | 임우진
신도부서
신도부서 |
| 최기우
신도부서
신도부서 | 이건재
신도부서
신도부서 | 진홍용
신도부서
신도부서 |
| 이정우
신도부서
신도부서 | 김단용
신도부서
신도부서 | 황영일
신도부서
신도부서 |
| 한승규
신도부서
신도부서 | 김영수
신도부서
신도부서 | 정홍식
신도부서
신도부서 |
| 한용철
신도부서
신도부서 | 이형수
신도부서
신도부서 | 황인환
신도부서
신도부서 |
| 김주영
신도부서
신도부서 | 최은미
신도부서
신도부서 | 이계인
신도부서
신도부서 |
| 김주영
신도부서
신도부서 | 최은미
신도부서
신도부서 | 박동영
신도부서
신도부서 |
| 이대식
신도부서
신도부서 | 장태두
신도부서
신도부서 | 박종규
신도부서
신도부서 |
| 조종환
신도부서
신도부서 | 배준식
신도부서
신도부서 | 김영달
신도부서
신도부서 |
| 최정현
신도부서
신도부서 | 최정현
신도부서
신도부서 | 최정현
신도부서
신도부서 |

■ 부목사

- | | | | |
|---------------------|---------------------|---------------------|---------------------|
| 이종석
신도부서
신도부서 | 정원민
신도부서
신도부서 | 김동하
신도부서
신도부서 | 차병준
신도부서
신도부서 |
| 김영태
신도부서
신도부서 | 서정진
신도부서
신도부서 | 이준경
신도부서
신도부서 | 박인기
신도부서
신도부서 |
| 이영기
신도부서
신도부서 | 류병희
신도부서
신도부서 | 김정호
신도부서
신도부서 | 이종철
신도부서
신도부서 |
| 김종호
신도부서
신도부서 | 여우근
신도부서
신도부서 | 김종성
신도부서
신도부서 | 송길환
신도부서
신도부서 |
| 이유진
신도부서
신도부서 | 안창덕
신도부서
신도부서 | 방영준
신도부서
신도부서 | 나광영
신도부서
신도부서 |
| | | | 정진호
신도부서
신도부서 |
- 신교사 정은희 권영일 최은미 권오성
이브라힘의 47명
추진희, 이소영 추은희
박태영, 이명하, 김서영, 정현주
- 협신교사 허요섭 (이소영) 장기업 (이소영)
- 찬양감독 김명구
- 감도사 김영기 2인제
- 여전도사
정원희 김경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윤 현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정아 안대순 최희성 백영자 김정연
조옥자 강국원 김성진 장재구
- 교정전도사 박영덕